

착한 며느리 룯

-네 번째 이야기-



27Page

나 레 이 션 옛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동네에는 먹을 것이 모자랐어요.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.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.



28Page

나 레 이 션 그 후,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였어요. 그리고 10년쯤 지났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병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.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큰 며느리인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룯만 남게 되었어요.



29Page

나 레 이 션 고향인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풍년이 들었어요. 나오미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.

나 오 미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.

나 레 이 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두 며느리 룯과 오르바를 불렀어요.

나 오 미 남편도 없으니 이제는 너의 부모들에게로 돌아가거라.

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.

나 레 이 션 세 사람은 너무 슬퍼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. 결국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떠나갔어요. 그러나 착한 며느리 룯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. 룯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.

룯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,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. 그러니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.



30Page

나 레 이 션 그래서 나오미와 룯은 함께 이스라엘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갔어요.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룯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.

사 람 들 나오미, 정말 당신이에요? 아이고 많이 늙었네 그려~

나 레 이 션 사람들은 룯에 대해서도 말했어요.

사 람 들 어쩔 저렇게 착하지?

나 레 이 션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었어요. 사람들이 밭에 나가 곡식을 베었죠. 그런데 나오미와 룯에게는 밭이 없었어요.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.

룯 어머니,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어요.

나 레 이 션 착한 며느리 룯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들로 나갔어요.



31Page



32Page

나 레 이 션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였어요.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
 룻을 보았어요.

보 아 스 처음 보는 여인인데, 쉬지도 않고 매우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구나.

나 레 이 션 보아스는 하인에게 물었어요.

보 아 스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?

하 인 네,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착한 며느리 룻이랍니다.



33Page

나 레 이 션 보아스는 하인에게 말했어요.

보 아 스 룻이 이삭을 주워 가도록 많이 흘려 놓아라.

나 레 이 션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.

나 오 미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웠니?

 룻 어머니,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어요.

나 오 미 그는 우리 친척이야, 앞으로도 그 곳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.

나 레 이 션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



34Page

나 레 이 션 그런데 보아스도 날마다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아름다운 룻을 보고
 좋아했어요. 그래서 나오미는 착한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도록
 허락해 주었어요. 마침내 보아스는 사랑스런 룻과 결혼하였어요.
 큰 부자인 보아스는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.
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어요.



35Page

나 레 이 션 하나님께서서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었어요. 나오미도
 기뻐해 주었어요. 보아스는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.
 이 오벳은,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었던 다윗의
 할아버지랍니다.



36Page